역사가 신채호의 사상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자유를 지향했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2.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지문 분석

1문단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문장부터 일반적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아는 무엇이고 비아는 무엇인지 아직은 모른다. 뒤에서 분명 설명하여 줄테니 일단은 받아드리고 지나가자.

신채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로 강경론자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그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하였다. 피상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투쟁과 연대는 그에게 모순되는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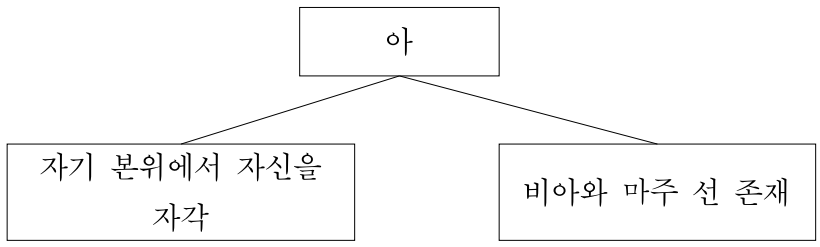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아'라는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평가원은 서두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지 않는다. 그 대답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중간에 삽입하기 때문에 미숙한 독자라면 정보량에 치여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었는지 잊기 쉽다. 우리는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문단을 독해할 것이다. 집중하자.

2문단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정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2문단에는 일반 정의, 수식 정의로 인해 정보량이 넘쳐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훌륭한 독자라면 정보량에 압도되는 것이 아닌, 앞서 배운 정의 방식과 더불어 차분한 분류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보를 숙지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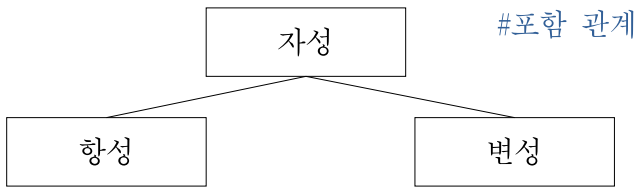
드디어 '아'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기다렸던 정보인 만큼 초점을 확실하게 잡고 독해를 시작한다. 아라는 것은 두 가지 일반적 정의로 구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눈썰미가 좋은 독자라면 아의 정의 속 '비아'라는 수식된 정의가 숨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듯 평가원이 독해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하나의 정의 속 여러 수식된 정의를 삽입함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독해에 장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 정의와 수식된 정의를 수도 없이 연습해왔다. 이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장 처리가 어려웠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라. 지금은 수련하는 시간이다.

다음 문장도 만만치는 않다. 아가 지니고 있는 '상대성'이라는 속성의 두가지 수식된 정의가 제시된다. 독자는 단순히 '상대성이 있구나~'하고 넘어가지 말고 상대성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어서 아가 지니고 있는 '자성'이라는 성질이 제시되는데, 여기서도 자성의 일반적인 정의 속 '항성'과 '변성'이라는 수식된 정의가 혼합되어 있다. 2문단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독자는 차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포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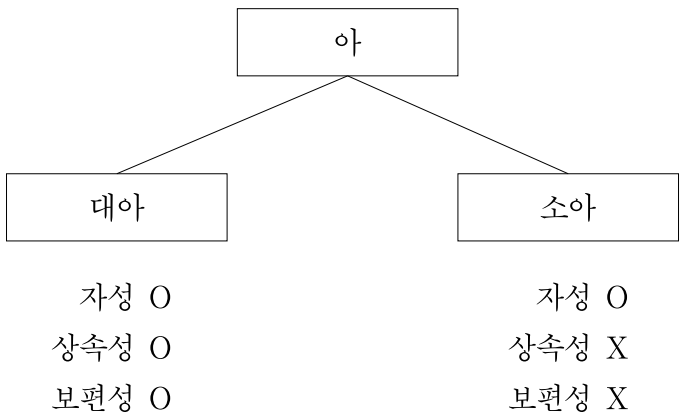
계속해서 도식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글을 글자로만 받아드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변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표상확보는 분명 문제 풀이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추가로 자성(항성 + 변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문 독해 시 '변화하는 값'과 '고정된 값'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시간 배운 수정진동자의 '고유한 값'이 기억나는가? 그때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번에는 변화하는 값이 등장한 것 뿐이다.

3문단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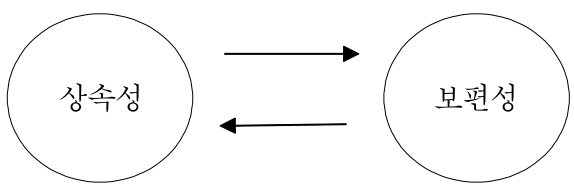
3문단에서는 '아'를 구체화하며 아까보다 한 층 더 높은 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신채호는 아를 대아와 소아로 구별하였고, 그 개별 특성까지 제시하였다. 보통 큰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은 쉽지만, 그 개별 특성들까지 숙지하는 것은 인지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지문 여백에 세부 정보를 트리 구조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것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표시는 나의 이해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표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상속성과 보편성의 일반적 정의가 제시되며 이 둘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읽어보자. 어떤 관계일까?

그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인 듯 보인다. 이를 도식화해보자.



전 지문에서 '순환 논증'을 도식화 했던 것이 기억나면 좋겠다. 봐서 알겠지만 동일한 도식에 내용물만 바뀌었다. 이처럼 한번 정확한 표상을 그려내고 나면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같은 도식이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즉, 형식은 항상 동일하니 우리는 내용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둘이 실현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제시된다. 아래 예시를 보아하니 항성과 변성 중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윗문장과 붙여보자. 항상과 변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둘 중 하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조화가 깨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독자는 3문단 마지막 문장을 읽고 '아 그러니까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구나!'를 인지했으면 된다.

4문단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1문단에서 확보한 화제와 직결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1문단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지금까지 아라는 개념을 숙지해왔던 것이다. 앞에서 본 개념들을 이제 여기에 붙여가며 내려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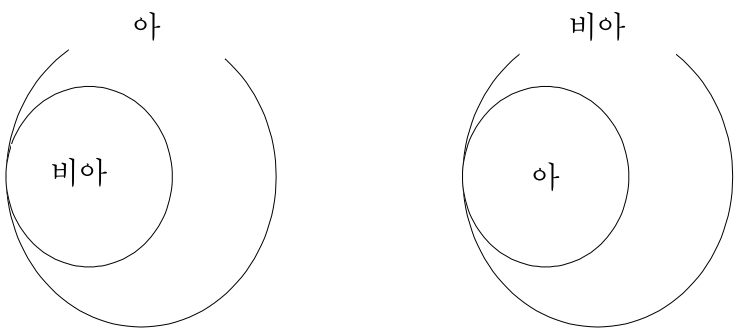
신채호의 인식 속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부합해야하는 것 같다. 이후 신국민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신국민이라는 대개념 속 항성과 변성이라는 수식된 정의가 제시되는데, 차분하게 앞에서 본 정의와 연결해보자. 신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인 항성이 '역사적 주체 의식'과 연결되며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려는 속성인 변성이 '제국주의라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생겨난 국가 정신'으로 연결된다. 이 두가지 다른 정의는 사실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했다

5문단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자유를 지향했다.

신채호의 아 개념이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독자가 이를 새로운 정보로 받아드리지 말고, 앞에서 확보한 정의에 구체적 정보들을 붙여가면서 결국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지문이 전개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면 훌륭하다.

아와 비아에도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는 듯하다. 아 속의 비아나 비아 속의 아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이해하면 편하다. 이와중에도 민중이라는 일반적 정의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이를 머릿속으로 도식화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손으로 지문에 표시하는 것도 추천한다.

조선 민중은 '아'인데 일본이라는 '비아'에 동화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 속의 비아'리고 정의한 것이고, 일본인이라는 '비아'들 속에 '아'인 조선 민중과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비아 속의 아'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개별 정보들의 나열이 아닌, 앞에서 확보한 정의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독자를 평가원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개념을 아래에 똑같이 붙여보자.
신채호에게 조선 민중은 앞서 정리한 일본에 동화된 '아 속 비아'를 제외한 '아'를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들, 즉 '비아 속 아'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왜 신채호에게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개념인지 이해가 되는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처럼 인문지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체화함으로서 반복한다. 단순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개념들을 연결하고 종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정답률 88%

#찍고 넘기기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O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O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O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대아의 역사적 기원은 지문에서 제시된 바 없다.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O

2.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정답률 68%

#정의 파악

#반대 추론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아는 소아와 대아로 이루어졌음을 묻고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1번 선지와 동일 논리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둘 중 어느것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O
→ 3번 선지와 동일 논리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1번 선지와 동일 논리

#생각 심화 : 반대추론

어떤 원인이 제시되었을 때, 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정답률 56%

#A의 B함정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O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O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신채호 사상에서 조선 민족이 연대해야 할 대상은 '비아' 자체가 아닌, 일본 속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아 속 아'이다. 비아와 비아 속 아는 다른 개념이다. 이를 A의 B함정 선지라고 한다. A와 A의 B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O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O

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정답률 86%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O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O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O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O

→ 해설 생략